

宋代 書藝詩 試探*

－ 唐代 書藝詩와의 비교를 곁하여－

禹 在 鎬**

〈目 次〉

- | | |
|-----------------|---------------|
| I. 서론 | 2. 고금의 書體를 망라 |
| II. 송대 서예시 개관 | 3. 碑帖의 인식과 애호 |
| III. 송대 서예시의 특징 | IV. 결론 |
| 1. 유무명 書家の 서예 | |

I. 서론

唐代에 창작되기 시작한 書藝詩는 당대 중엽에 이르러 본궤도에 올랐다. 이는 詩가 당대의 가장 주요한 문학 장르였기에 당대의 시인들이 문인들의 서사도구였던 文房四寶를 포함한 서예에 관심을 가지면서 시의 주제로 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예시는 당대보다 송대에 이르러 더욱 활발하게 지어지고 내용도 더 다양해졌다. 왜냐하면 당대의 서예시는 《全唐詩》 전체를 통틀어 100여수 정도만을 선별할 수 있었지만,¹⁾ 송대

* 이 연구는 2021학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 嶺南大學校 中國言語文化學科 教授.

1) 당대 서예시에 대해 필자는 〈唐代 書藝詩 試探〉(《中語中文學》 第43輯, 2008. 12. 146-174쪽)에서 이미 다루어 보았으며, 서예시의 정의와 서예시의 범주 등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 적이 있어 본고에서는 생략한다. 중국에서도 蔡顯良의 〈唐代論書詩研究〉(南京藝術學院 碩士學位論文, 2004)와 李靜月的 〈唐代書詩的書法史料價值研究〉(首都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5) 등의 여러 논문

의 서예시는 《全宋詩》에서 모두 946수를 선별할 수 있을 정도로 많기 때문이다.²⁾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송대의 서예시로 선별해둔 시들을 일차적 연구 대상으로 삼아 송대 서예시의 특징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필자는 이미 당대 서예시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본 적이 있으므로, 당대 서예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송대 서예시의 특징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중국에서는 송대 서예시에 대해 이미 종합적이고도 총체적으로 연구한 논문이 발표된 적이 있고, 또 송대 서예시로 선별된 시의 분량이 너무 많아 한 편의 소논문에서 이를 전반적으로 모두 다룬다는 것은 쉽지 않을 듯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국의 선행연구와는 분석 각도를 조금 달리 하여, 시제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키워드인 서예가와 서체, 그리고 碑帖 등을 중심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에서 당대 서예시를 선별 추출하여 연구하기도 하였다. 《全唐詩》(上·下, 臺灣 宏業書局, 民國71年, 再版)에 수록된 당대의 시수는 총 3,276 시인의 53,035수가 실려 있는데(田奕, 〈電腦裏的唐詩〉, 《文學遺產》 第5期, 1992. 참조), 이중 서예시는 《全唐詩》 전체를 통틀어 70여 시인의 99題 100수 정도가 된다. 당대 서예시에 대해서는 줄고, 《당나라 시인들이 서예를 노래하다 -中國 唐代 書藝詩》(영남대학교출판부, 2020.10) 20-25쪽을 참조. 당대 文房 四寶를 읊은 시에 대해서는 줄고, 〈文房四友를 읊은 唐詩에 관하여〉(《韓中言語文化研究》 37輯, 2015.02) 참조.

- 2) 송시는 《全宋詩》(全72冊, 北京大學出版社, 1998)에 대략 9천여 시인의 20만여 수가 수록되어, 《全宋詩》에 수록된 시인의 수와 시수가 대략 《全唐詩》에 수록된 시인 수의 3배, 시수는 4배가 된다. 《宋元論書詩全編》(張毅·于廣杰, 南開大學出版社, 2017)에서는 송대 서예시로 모두 299시인의 946수를 선록하였으니, 이 책에 수록된 시수만을 보았을 때, 당대 서예시에 비해 9배 이상이나 많은 양이다. 물론 《宋元論書詩全編》에 수록된 946수를 모두 송대 서예시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또 다른 문제이지만, 본고에서는 당연히 가장 전형적인 서예시를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할 것이다.

II. 송대 서예시 개관

송대 서예시에 대해서는 이미 중국의 선행연구에서 전반적으로 연구한 전례가 있으므로,³⁾ 본고에서는 이들 선행연구를 원용은 하되 중국의 선행연구와는 각도를 조금 달리 하여, 우선 이들 서예시의 詩題에 주안점을 두어, 이들 송대 서예시를 크게 시체에 언급된 서예가와 각종 서체 및 碑帖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송대 서예시는 당대 서예시에 비해 그 수량이 거의 10배 정도 되기 때문에 주제로 다루고 있는 내용도 당대 서예시에 비해 더욱 다양하고 풍부하다. 다양하고 풍부한 주제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두드러지는 것은 역대 의 수많은 유무명의 서예가가 시체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중국 서예사에서 반드시 거론되는 당 이전과 당대 유명 서예가는 말할 것도 없고, 송대의 유명 서예가 역시 당연히 등장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국 서예사에서는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는 송대 인물들도 상당수 거론되고 있다.

먼저 중국 서예사에서 거론되는 유명 서예가들을 열거해보면⁴⁾ 당대 이

- 3) 송대 서예시에 관해서는 蔡顯良의 〈宋代論書詩研究〉(南京藝術學院 博士學位論文, 2007: 이 논문은 人民出版社에서 2013.3에 같은 제목의 단행본으로 출간되었음)에서 매우 포괄적이고도 전반적으로 연구한 적이 있는데, 그는 송대 서예시 855수(단행본에서는 857수)를 선별하여 부록으로 열거하였다. 이에 더하여 《宋元論書詩全編》(앞의 책)에서는 송대 서예시를 매우 광의적으로 선별하여 299시인의 946수를 열거하고 있다. 선별 기준이 광의적이라고 한 것은, 黃庭堅이 마애비를 직접 보고 그 감개를 읊은 〈마애비에 제하다(題磨崖碑)〉라는 시처럼, 전체 24구의 장편 중에서 唐朝의 흥망성쇠에 대한 감개만을 주로 언급하고 있고 서예 관련한 내용은 거의 없지만, 서예사에서는 비교적 중요한 磨崖碑를 시체에 언급하였기에 이를 서예시로 선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시체에 碑帖이란 용어를 사용한 다른 시들에서도 보인다.
- 4) 중국을 비롯한 동양에서는 문인 학자들이 집필하거나 편지를 쓸 때 문방사보를 매개로 한자를 필사하였기 때문에 거의 모든 이들이 서예 작품을 남기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모두가 서예가의 범주에 든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모두를 유명 서예가라 하여 연구 대상에 포함할 수는 없으므로, 본고에서는 《서예가》(서예지식1000제, 주준길 저, 광노봉·이경애 역, 다운샘, 2017.9)와

전의 유명 서예가로는 李斯(?~B.C.208)⁵⁾, 王羲之(303~361) 王獻之(344~388)의 二王이 언급되었고, 당대의 유명 서예가로는 歐陽詢(557~641), 李北海[李邕](678~747), 張長史[張旭](?~?), 史惟則(?~? 天寶年間), 徐浩(703~782), 顏真卿(709~785), 柳公權(778~865), 楊凝式(873~954)⁶⁾, 李陽水(?~?) 등을 들 수 있고, 송대의 유명 서예가로는 徐鉉(916~991), 徐鉉(920~974), 李煜(937~978), 李建中(945~1013), 林逋(967~1028), 太師 杜衍(978~1057), 蘇子美[蘇舜欽](1008~1048), 蔡君謨[蔡襄](1012~1067), 蘇軾(1036~1101), 黃庭堅(1045~1105), 米芾(1051~1107), 米友仁(1086~1165), 薛紹彭(?~?), 吳說(?~?), 陸游(1125~1210) 등을 들 수 있다.

유명 서예가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정치적·학술적·문학적으로 유명 인물의 서예를 언급한 경우도 상당수 있다. 예를 들면 魏 太武帝(408~452), 陳子昂(659~700), 唐 玄宗(685~762), 韓愈(768~824)와 柳宗元(773~819), 文正公 范仲淹(989~1052), 石曼卿(994~1041), 宛陵 梅堯臣(1002~1060), 潞公 文彥博(1006~1097), 歐陽脩(1007~1073), 文正公 司馬光(1019~1086), 王平甫(1028~1076), 陳與義(1090~1139)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외에 중국 서예사에서 유명 서예가로 이름자가 거론되지 않지만 서예시의 시체에 등장하는 인물로 唐氏, 李太保, 韓永錫, 孫珪, 黃素, 胡霏然, 張伯益, 張中樂, 楊立之, 高賓王, 黃公, 蘇才翁, 李端叔, 劉涇, 孫莘老, 蔡濟忠, 蘇唐卿, 宋卿, 宋秀才, 象山, 劉天錫의 아들, 悟空道人(徐蘊行), 鍾離中散, 趙常德, 張魏公, 楊謹仲, 楊法曹, 顏樂閑, 王洽, 王操, 劉原父, 張參政公 등을 들 수 있다.

《中國書道史年表》(玉村霽山 編, 二玄社, 2015)라는 두 책에 수록된 인물들을 중심으로 중국 서예사에서 거론되는 유명 서예가로 분류하고자 한다.

- 5) 각 서예가의 생몰년은 《서예가》와 《中國書道史年表》라는 두 책이 거의 대동소이하였지만, 약간의 차이라도 있는 경우 《中國書道史年表》에 기재된 생몰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 6) 楊凝式 이하 李煜까지 五代十國에 걸쳐 생존한 서예가들은 어떤 책에서는 唐代(618~907)의 인물로 어떤 책에서는 宋代(960~1279)의 인물로 서술하기도 하였는데, 본고에서는 생몰년이 당말 출생하여 오대십국에 걸친 인물은 당대로, 오대십국 이후 출생하여 송대에 걸친 인물은 송대 인물로 분류하였다.

아울러 書僧으로 이름을 남기고 있는 인물도 상당수 있는데, 이들은 송 이전의 서승과 송대 서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당대 서승의 서예에 대해서는 단연코 懷素(737~799)⁷⁾ 관련한 서예시가 가장 많아 12수가 전하고 있고, 송대 유명 서승의 서예에 대한 시가로는 夢英(948?~?) 관련한 시가가 가장 많아 30수 정도가 현재까지 남아 있다. 이밖에 시체에 언급된 당송대 유무명의 서승이나 도사로는 明道人, 謬師, 中師, 穎上人, 緣概師, 瑛上人, 覺海, 冲雅上人, 清道, 法一, 隆上人, 雪竇禪師, 參寥師, 六觀堂老人, 雅上人, 智納 등을 열거할 수 있다.

현전하는 송대 서예시의 작품 수가 많기 때문에 시체에 등장하는 서예가가 많지만, 이와 함께 시체에서 거론되고 있는 서체 역시 다양하다. 당대 서예사에서 언급되어진 서체는 가장 많은 것이 草書였고, 기타 시체에 飛白書, 八分書, 篆書(小篆과 大篆), 隸書, 正書 등이 언급된 시 각 몇 수만이 존재할 뿐이었는데, 송대 서예시의 시체에 언급된 서체는 金書(1), 飛白書(10), 八分書(2), 篆書(26), 隸書(5), 御書(43+11: 서체는 아니지만 황제의 서예를 읊음), 游絲書(8), 草書(71: 行草 11수 포함), 行書(64), 楷書(2) 등 거의 모든 서체를 망라하고 있으면서, 시의 분량도 250수에 육박하고 있을 정도로 많다.

이밖에 송대 서예시를 개괄하면서 빠뜨릴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송대 서예시의 시체에 -帖과 -碑를 언급하고 있는 시가 특히 많다는 점이다. 시체에 -帖을 언급하고 있는 시 중에는 직접적으로 書帖, 法帖, 唐法帖 등이라 언급한 외에도, 橘帖, 買田帖, 石湖帖을 비롯하여 ×帖 또는 ×軸이란 어휘가 보이는 것이 10수 이상 있다. 특히 왕희지 蘭亭序의 다른 이름인 禊帖에 관한 시는 특별히 많아 시체에 蘭亭이나 禊帖이 언급된 시와 <右軍書裙帖>처럼 왕희지 서첩이 언급된 시만 근 50수에 가깝다.

7) 회소의 생몰연도에 대해서는 아직도 725~785년으로 기재된 선행연구가 많이 있으나, 근년에는 737~799년으로 확정되었다. 회소의 생애에 대해서는, <懷素草書와 역대 懷素草書歌에 대하여>(《中國語文學》 77輯, 嶺南中國語文學會, pp.5-41, 2018) II장을 참조.

송대 서예시의 시제에서 보편적으로 보이는 -碑라는 명칭에서도 그 특이점을 파악할 수 있다. 시제에 -碑를 언급하고 있는 시 중 일반칭인 石刻이나 古碑, 斷碑, 秦碑, 漢碑, 唐碑 등은 차치하고, 이들 용어 외에 구체적인 비석 명칭인 瘞鶴銘, 彌陀碑, 西嶽碑, 石室碑, 麟鳳碑, 李愷碑, 羅公碑, 貢院碑, 墮淚碑, 放生池碑, 中興頌碑(浯溪碑, 磨崖碑, 摩崖碑), 買硯碑, 桐柏碑 등이 송대 서예시의 시제에 출현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는 청대에 확정된 碑學과 帖學의 초보적 구분이 송초부터 시작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시제에 -碑와 -帖이란 용어를 직접 언급한 당대 시가는 張說의 御書王太尉碑, 張繼의 嶧山碑, 王建的 酸棗縣蔡中郎碑와 張祐의 酸棗驛前碑, 姚合의 古碑, 唐彥謙의 宗人故帖, 楊凝式的 懷素酒狂帖 등 7수 정도에 불과한 것과 비교해보면 송대 서예시에서의 비첩 관련 내용은 가히 폭발적이라 할 만큼 많아졌다. 이는 서체가 새겨진 송대 이전의 비석 유물과 전대의 진적이 시대를 거듭할수록 많아졌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송대 문인들이 비첩의 가치를 새로이 발견하였고, 이 둘의 특징적인 차이를 인식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송대 서예시를 창작한 시인 299명 중에 10수 이상의 서예시를 남기고 있는 시인은 北宋의 梅堯臣 29수, 蘇軾 28수, 黃庭堅 29수, 米芾 24수 등이고, 南宋에서는 陸游 33수, 楊萬里(1127~1206) 21수, 樓鑰(1137~1213) 12수, 趙蕃(1143~1229) 16수, 岳珂(1183~1243) 108수, 劉克莊(1187~1269) 12수 등 송대 전체를 통틀어 10명이었다. 당대에는 10수 이상의 서예시를 창작한 시인으로 杜甫가 유일하였던 것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많은 송대 시인들이 서예시를 다수 창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들 10인 중 북송의 4인은 매요신을 제외한 나머지 3인이 서예사에서 蔡襄과 함께 송대 四大家 또는 북송 사대가의 명칭이 있는 유명 서예가이다. 이들 사대가 중에 채양만이 서예시라 할 만한 시가 거의 전하지 않는 것과는 달리,⁸⁾ 채양을 대신하여 매요신이 서예시를 많이 남기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이채롭다.

8) 채양의 서예시는 《蔡襄全集》(福建人民出版社, 1998)이나 《蔡襄集》(上海古籍出版社, 1996.8) 등을 뒤져보아도 거의 찾을 수 없었다.

매요신은 비록 스스로 “나는 글씨를 잘 쓰지 못해 매번 부끄러운 마음인데(我不善書心每媿)”라고 고백했던 점에서 보자면 서예에 뛰어나지는 않았지만,⁹⁾ 중국 시사에서 당시와는 다른 송시의 선하가 되는 새로운 풍격을 열어젖혔다는 평이 있는 바, 매요신의 서예시만을 보아도 이러한 기미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¹⁰⁾

송대 서예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시인은 바로 약가이다. 약가의 서예시는 御書を 읊은 시 12수 외에, 거의 대다수가 왕희지와 왕헌지의 서첩에서 시작하여 자신이 생존했던 남송대까지 거의 모든 주요 서첩에 대한 贊詩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96수나 된다. 이 시들은 남송대까지의 중국 서예사를 서예가와 법첩 중심의 찬시로 정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송대 서예시의 특징

1. 유무명 書家の 서예

송대 서예시의 시제에 등장하는 역대 서예가 중에는 중국 최고의 명필이란 칭호가 있는 王羲之와 왕희지의 아들 王獻之, 그리고 이 둘을 함께 二王이라 칭송하고 있는 시들이 특히 많다. 이러한 현상은 왕희지가 당대에 이어 송대에도 최고 수준에 이른 서예가로 추존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왕희지 또는 王右軍, 逸少가 시제에 언급된 시는 30수에 가깝고, 왕헌지 또는 王子敬이 언급된 시는 9수, 이왕이 거론된 시는 5수 정도가 있다. 이

9) 《梅堯臣集編年校注》(朱東潤 編年校注, 上·下, 上海古籍出版社, 1980.11) 권 16: 《全宋詩》 권247, 2883쪽. 〈答宋學士次道寄澄心堂紙百幅〉의 한 구이다.

10) 매요신 서예시에 대해서는 〈梅堯臣 書藝詩 特徵〉(嶺南中國語文學會, 中國語文學 第55輯, 2010.6), 소식과 황정건의 서예시에 대해서는 〈蘇軾의 書藝詩를 통해 본 書藝觀〉(嶺南中國語文學會, 中國語文學 第71輯, 2016.4), 〈黃庭堅의 書藝詩 研究〉(嶺南中國語文學會, 中國語文學 第69輯, 2015.8) 등을 통해 분석해보았으며, 미불과 약가의 서예시에 대해 다른 논문을 준비 중이다.

중 가장 전형적인 시로 蘇軾의 〈왕희지 서첩에 제하다(題王逸少帖)〉라는 시 한 수를 보고자 한다. 당 이전의 서예가와 서예 작품 중 소식에게 가장 인정을 받았던 서예가는 단연코 王羲之였고, 최상의 법첩으로 받아들였던 작품은 〈蘭亭集序〉라고 할 수 있다. 서예가 왕희지에 대한 소식의 흥미는 왕희지의 서첩을 보고 난 뒤 지은 이 시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顛張醉素兩禿翁， 追逐世好稱書工。 何曾夢見王與鍾， 妄自粉飾欺盲聾。 有如市倡抹青紅， 妖歌嫵舞眩兒童。 謝家夫人淡豐容， 蕭然自有林下風。 天門蕩蕩驚跳龍， 出林飛鳥一掃空。 爲君草書續其終， 待我他日不忽忽。	미친 장옥과 취한 회소 두 민머리 늙은이는, 세상 사람들 기호를 쫓아 글씨장이란 명칭 있었지. 어찌 일찍이 왕희지와 중요를 꿈에서 보았다고, 망령되어 스스로를 분식하며 소양 없는 이들 속이는가? 검붉은 분을 저속하게 쳐 바른 시정의 창기와 같이, 요사스런 노래와 외설스런 춤으로 아동을 현혹하네. 사씨 부인 謝道韞은 태연하고 아름다운 용모와 자태에, 소연하니 절로 한아하고 초탈한 기색을 지녔다네. 천문은 넓고도 넓어서 놀란 용이 뛰어오르고, 숲에서 날아 나온 새들이 한 번에 비어버린 듯하네. 그대 위해 초서로 그 마지막을 이을 것이니, 내가 훗날 바쁘지 않을 그 날을 기다렸다가. ¹¹⁾
--	--

소식의 서예에 대한 일관된 관점은 한아하고 초탈하며 古意가 풍부한 漢代와 晉代의 고상한 운치를 숭상하고, 張旭과 懷素의 草書처럼 너무 자유분방하면서 함축이 부족한 서예 기풍을 부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시에 담겨 있는 소식의 비평은 칭찬과 비난이 분명하고 결구가 긴밀한데, 여기서는 이러한 소식의 서예관이 비교적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장옥과 회소의 광초는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빙빙 감돌고, 거칠고 호방한 곳으로 빠지면 광기가 남김없이 다 쏟아져 나온다고 알려져 있다. 비록 장옥과 회소의 서예는 그 나름대로 특징적인 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

11) 《蘇軾詩集》 권25, 〈題王逸少帖〉, 1342쪽: 《全宋詩》 권808, 9362쪽. 이하 본고에서 시인의 시집 원문 出典은 文淵閣四庫全書 電子版(上海古籍出版社, 3.0版, 2007)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였다.

에, 소식이 이들의 초서를 “검붉은 분을 저속하게 쳐 바른 시정의 창기와 같이, 요사스런 노래와 외설스런 춤으로 아동을 현혹한다.”라고 극단적으로 평하여 이들의 초서를 전적으로 부정한다면, 평자에 따라서는 소식이 지나친 편견에 빠졌다고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소식의 비평이 반드시 옳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러한 비유는 왕희지 서첩의 뛰어남에 대비해 볼 때, 장욱과 회소의 초서가 이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이라 할 수 있다.

〈손신로가 목묘정을 노래한 시를 구하다(孫莘老求墨妙亭詩)〉에서는 왕희지의 서첩인 〈난정집서〉의 빼어남에 대해 “건사에 쓰여진 난정집서 원본은 소릉에 묻혔는데, 세간에 전해진 모사품조차 용이 날아오를 듯한 기세라네.(蘭亭繭紙入昭陵, 世間遺跡猶龍騰.)”라고 하여 모사품조차 龍蛇飛騰하는 기세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거나,¹²⁾ 〈미불이 지은 이왕의 글씨 발미시에 차운하다. 두 수(次韻米芾二王書跋尾二首)〉 중 첫째 수에서도 〈난정집서〉 이외의 다른 왕희지 서첩에 대해 선망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었다.¹³⁾ 소식과 미불은 매번 유명한 필적을 얻으면 서로를 불러 감상하며 절차탁마하면서 고인 필적의 오묘함을 깊이 추구하였다고 한다. 이 시에서는 특히 왕희지의 진적 〈靑李來禽帖〉을 보게 되었음을 언급하였는데, 왕희지 왕헌지 二王의 이름난 필적을 보면서 소식과 미불은 서예 안목을 더욱 넓혔던 듯하다. 이왕 서첩에 대한 추앙과 경도는 소식의 또 다른 시 〈유경문의 좌장에 소장된 왕헌지 서첩에 쓰다(書劉景文左藏所藏王子敬帖)〉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는데,¹⁴⁾ 이러한 시들을 통해, 한아하고 초탈하

12) 《蘇軾詩集》 권8, 〈孫莘老求墨妙亭詩〉, 371쪽: 《全宋詩》 권791, 9160쪽.

13) 《蘇軾詩集》 권29, 〈次韻米芾二王書跋尾二首〉 其一, 1536쪽: 《全宋詩》 권812, 9397쪽. “..... 왕희지 진적인 〈청리래금첩〉을 보게 되었네. 가을 뱀과 봄 지렁이 오래부터 서로 뒤섞여 있으니, 들오리와 집닭 중 누가 더 아름답다 하리오. 옥으로 만든 서질과 금 열쇠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得見來禽與靑李, 秋蛇春蚓久相雜, 野鶩家雞定誰美, 玉函金籥天上來,)”

14) 《蘇軾詩集》 권32, 〈書劉景文左藏所藏王子敬帖〉, 1685쪽: 《全宋詩》 권815, 9426쪽. 이 시의 시제는 〈書劉景文所藏王子敬帖絕句〉로 되어 있는 판본도 있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집닭과 들오리가 동시에 제사상에 올랐고, 가을 뱀

며 古意가 풍부한 漢代와 晉代의 고상한 운치를 숭상했던 소식은 진한대와 위진대를 통틀어 서예가로는 왕희지를, 서예작품으로는 <난정집서>를 최고의 전범으로 여기며 왕희지의 여타 법첩과 왕헌지를 함께 칭송하였다. 왕희지와 왕헌지, 이왕, 그리고 <난정집서>를 시제로 하여 시로 읊은 경우는 梅堯臣이 왕희지의 목적을 보고 시로 읊은 <비각에서 일소 왕희지의 목적을 보다는 오충경 시의 운자에 맞추어(依韻吳冲卿祕閣觀逸少墨蹟)>라는 시¹⁵⁾를 제외하고는 소식 이전에 다른 시를 찾을 수 없음을 볼 때, 송대 서예가들의 왕희지 서예와 난정집서에 대한 추승과 애호는 소식이 그 선하를 열었다고 하겠다.

유명 書僧을 시제에 거론하고 있는 경우에 당대 서승으로는 단연코 懷素 관련 서예시가 가장 많다. 시제에 회소라는 이름이 거론된 시는 총 12수를 찾을 수 있었는데,¹⁶⁾ 이 시들 중 司馬光의 <회소의 글씨(懷素書)>라는 시를 한 수 보기로 한다.

上人工書世所稀,	스님의 빼어난 글씨는 세상에 드문데,
於今散落無復遺。	지금은 흩어지고 훼손되어 더 남은 것 없네.
君從何處獲數幅,	그대가 어디에서 여러 폭을 얻었는지,
敗絹蒼蒼不成軸。	망가진 비단 푸르죽죽하니 한 축이 되지 못하네.
雲流電走何縱橫,	구름 흐르고 번개 치듯 중횡으로 거침없는데,
昏醉視之雙目明。	흐릿하니 취하여 바라보니 두 눈이 밝아지네,
烈火燒林虎豹慄,	뜨거운 불이 숲을 태워 호랑이와 표범이 전율하고,

과 봄철 지렁이 모두 서화 상자에 들어 있네. 그대 집안에 소장한 왕헌지 글씨 두 줄짜리 열두 자가, 오후 李泌가 소장한 책 삼만 권의 기운을 능가하네. (家雞野鶩同登俎, 春蚓秋蛇總入奩。君家兩行十二字, 氣壓侯禔三萬籤。)" 몇 자 되지 않는 왕헌지 서첩의 기운이 강함을 묘사하고 있는데, 앞의 <次韻米芾二王書跋尾二首> 其一에서 사용된 시어가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다.

- 15) 《梅堯臣集編年校注》 권23: 《全宋詩》 권254, 3075쪽. 이 시의 번역과 해설에 대해서는, 《梅堯臣 書藝詩 特徵》 181-184쪽을 참조.
- 16) 필자는 줄고 <懷素 草書와 역대 懷素草書歌에 대하여>(앞의 논문)에서 송대의 회소 관련 서예시로 4수를 소개하였지만, 《宋元論書詩全編》(앞의 책)에서는 총 12수를 수록하고 있다.

疾雷裂地龍蛇驚, 급한 우레가 땅을 가르니 용과 뱀이 놀라네.
 須臾掛壁未收卷, 말지 않고 벽에 걸어두었던 그 잠깐 사이에,
 陰風颯颯來吹面, 차가운 바람 횡횡 불어와 얼굴에 몰아치네.
 秣疑神物在閣中, 다만 신묘한 물건이 어둠 속에 있는 듯하고,
 寶秘不令關俗眼, 보배로 비장하니 세속의 식견 상관 앓는다네.
 嗟余平生不識書, 아아, 나는 평생 글씨를 잘 알지 못하지만,
 但愛意氣豪有餘, 단지 의기가 호탕하여 여유 있는 것만 아꼈네.
 欲求數字置座右, 몇 글자 구하여서 자리 옆에 두고자 하지만,
 安得滿斗千金珠, 천금의 보주 가득 주어도 어찌 얻을 수 있으리.¹⁷⁾

회소의 광초는 일찍이 당대 사람들의 뜨거운 찬양과 최상의 칭송을 받았다. 이 시는 여전히 당대의 실마리를 이은 것으로, 이 당시의 서풍은 여전히 唐人들의 규범을 따랐으며 宋人들의 격조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음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시의 배치는 짜임새가 있고 맥락이 분명하다. 시의 서두에서는 회소의 필적을 당시에는 이미 아주 보기 힘들어서 비록 잔권이나 훼손 작품조차도 세상에서는 아주 진귀하게 여긴다고 하였다. 중간 부분에서는 회소의 필적을 감상하는 느낌을 그리고 있는데, 초서의 용필이 거침없고 자유분방함을 형용하여 “구름 흐르고 번개 치듯 종횡으로 거침없다.(雲流電走何縱橫)”라고 하거나, “뜨거운 불이 숲을 태워 호랑이와 표범이 전율한다.(烈火燒林虎豹慄)”라고 초서의 기세가 성대하여 사람의 마음과 혼을 움직인다고 극찬하였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자신이 비록 회소의 서예를 좋아하지만 그 가격이 너무 비싸 구입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단지 바라보며 탄식할 뿐이라는 사실을 쓰고 있다.

앞의 시에서 소식이 회소 초서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과 달리 사마광의 회소 초서에 대한 인식이 지극히 긍정적이어서, 두 평자의 시각이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점이 흥미롭다. 사마광은 스스로가 “나는 평생 글씨를

17) 이 시는 《傳家集》 권3 古詩2: 《全宋詩》 권499, 6031쪽에 실려 있다. 이 시의 원제는 〈매성유의 석창언 집안에 소장하고 있는 다섯 가지 물건이라는 시에 화답하다·회소의 글씨(和聖俞詠昌言五物·懷素書)〉로 되어 있다. 이 시는 다섯 수 중의 넷째 수이다.

잘 알지 못한다(嗟余平生不識書)”고 자평하였지만,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사마광의 해서와 예서를 보았을 때, 비록 명필이라 할 수는 없지만 필력과 장법 등에 있어서는 법에 구속되는 바가 없고 비교적 자유분방한 서예를 구사하여 수준이 상당히 높았다고 평할 수 있다.¹⁸⁾

당대의 회소가 송대 서예에 미친 영향이 상당하였음은 회소의 범명을 시제에 거론한 시가 여러 수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지만, 이는 송대 서승이 지은 서예시나 서승의 서예를 읊은 서예시에서 일반적으로 회소의 글씨가 서예, 특히 초서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沈遼(1032~1085)가 서승인 道淸의 서예를 보고 읊은 <도청에게 드리다(贈道淸)>라는 장편의 시 한 수를 인용해본다. 북송의 유명한 시인이자 서예가인 沈遼는 자가 睿達이며, 錢塘 사람으로, 熙寧 연간에 지방 관직을 역임하다가 후에 齊山에 집을 짓고 이를 雲巢라 이름하였다.

少年好書老彌篤， 牙籤錦囊數百軸。 江左墨妙世不闕， 有唐諸公粗可錄。 諸公草法無可稱， 中葉始有張顛名。 張顛下筆有神會， 其妙不似點畫成。 後來沙門有藏真， 措意瀟灑尤更精。 當時二子最名盛， 至今學者皆伏膺。 本朝蘇公名弟兄， 汝南蒲陽亦有聲。 比來諸公已老死， 其餘卑俗類可憎。	어렸을 때도 글씨 좋아하더니 늙어서 더욱 돈독하여, 상아 표지 비단 주머니에 수백 축의 글씨 들어있네. 동진의 묘한 목적은 세상에서 볼 수 없고, 당나라 때 여러 공들은 거칠게나마 열거할 수 있네. 여러 공들의 초서 필법은 칭할 만한 이가 없었는데, 중엽이 되어서야 비로소 장옥이란 이름이 있었다네. 장옥은 붓을 대면 신묘한 운치가 있어서, 그 묘함은 점과 획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았네. 후에는 스님 가운데 회소라는 분이 있었는데, 뜻을 둠이 고상하고 탈속적이라 더욱 정묘하였네. 당시에 두 사람은 가장 명성이 있었으니, 지금까지도 배우는 이들 모두 마음에 깊이 새기네. 본조에는 소씨 집안 순원과 순흠 형제 이름나 있으며, 여남의 구양수 포양의 채양 또한 명성이 자자하다네. 근래에 여러 공들이 이미 모두 작고하였으니, 그 나머지 비속한 부류들은 미워할 만하구나.
--	--

18) 현재 사마광의 서예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我昔乘輿遊都城，
列子示我新素屏。
始知無擇得此道，
長沙道人今復生。
歸來窮巷掩柴荆，
惠然相訪得忘形。
贈我數行豈無意，
勢如九河注滄溟。
中間龍蜃降復升，
歡伏不暇獨可驚。
自欲何能謝言情，
欲贈金玉還愧輕。
慙慙之揖喜不勝，
使我驅霧老後明。

나는 옛날 한 때의 흥을 따라 도성에서 노닐었는데,
여러 지인들 나에게 새로운 흰 비단병풍을 보여주어,
비로소 알았네, 도청이 이 오묘한 도를 터득하여,
장사도인 회소가 지금 다시 소생하였다는 사실을.
누추한 골목으로 돌아와 사립문을 닫아 두었으나,
흔쾌히 서로 방문하니 외형에 구속받지 않는다네.
글씨 몇 줄을 나에게 써주니 어찌 의미가 없으리,
그 기세는 황하가 큰 바다로 흘러가는 듯하네.
중간중간 용과 이무기가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고,
힘차게 엮드려 있을 겨를도 없어 홀로 놀랄 만하네.
어떻게 하면 감사하며 정을 절로 전할 수 있으리,
진귀한 보옥 드리려니 오히려 가벼울까 부끄럽네.
은근하게 읊을 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는데,
안개 몰아내어 내 늙은 눈을 다시 밝게 하네.¹⁹⁾

도청과 심료는 同鄉으로, 이름을 보면 도청은 출가한 승려였다. 도청의 서예는 장욱과 회소를 학습하여 자못 기세가 있었으므로, 심료가 長歌를 지어 그를 칭찬하였다. 도청 초서 기세의 성대함을 극단적으로 표현하여 황하가 큰 바다로 흘러간다고 하거나, 글씨 중간에 용과 이무기가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간다고 읊기도 하였던 것이다. 심료는 蘇軾, 黃庭堅, 米芾와 동시대 사람이지만 이들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았다. 그의 만년에 앞의 세 사람은 모두 당시에 큰 이름을 얻었지만, 심료의 이 시에서는 이들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동진 이후 송대까지 초서에 일가를 이룬 이들로 장욱, 회소, 소순원 소순흠 형제, 구양수, 채양 등을 두루 열거하고 있을 뿐이다. 오히려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더욱 “그 나머지 비속한 부류들은 미워할 만하다(其餘卑俗類可憎)”고 하고 있으니, 어쩌면 이들 사이에서도 서예상의 풍격과 유파가 서로 달랐고 견해도 서로 달랐음을 알 수 있다. 당대 이후 송대 서승의 서예시에서는, 특히 초서와 관련하여서는 일반적으

19) 이 시는 《雲巢編》 권2: 《全宋詩》 권717, 8266쪽에 실려 있다. 시제의 道淸은 《사고전서》, 《全宋詩》 등 다른 판본에는 淸道로 되어 있기도 하다.

로 회소 초서가 하나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밖에 유명 서예가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정치적·학술적·문학적으로 유명한 인물의 서예를 시체에 언급한 경우도 다수 있고, 중국 서예사에서 이름이 거론되지 않지만 서예시의 시체에 등장하는 인물도 상당히 많다. 무명의 서예가와 관련하여 상당히 많은 시가 전해지고 있지만, 이들의 서예를 언급한 시들을 모두 인용하거나 거론할 수는 없으므로, 여기서는 楊萬里(1127~1206)의 <오공도인의 목적에 발문을 쓰다. 서와 함께(跋悟空道人墨蹟并序)>라는 시 한 수를 보기로 한다.

葱嶺書如積,	불경을 쓴 책이 높은 산처럼 쌓여 있고,
銀鈎墨未新.	은갈고리 같은 힘찬 필획은 새로울 것 없네.
前身虞學士,	전생은 당나라 때의 우세남이요,
今代衛夫人.	현생은 동진 때의 위사 부인이라네.
曲水脩蘭禊,	유상곡수하며 쓴 왕희지의 <난정집서>가 있고,
明珠採洛神.	옥구슬처럼 빛나는 왕헌지의 <낙신부>도 있지만.
更令添此帖,	다시 서은행의 이 법첩을 보탠다면,
急就不須珍.	황상이 쓴 <급취편>도 진귀할 것 없겠네. ²⁰⁾

봉건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비교적 낮아 글을 읽을 수 있는 식자가 되기는 쉽지 않았고, 서예가가 된다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이 시에서 읊고 있는 徐蘊行 부인은 虞世南의 글씨를 배워 글씨가 단정하고도 수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우세남의 해서에 대해서는 남송 韓渡(1159~1224)의 칠언절구 <창포가 제한 당송대 여러 현인들의 화상 석각 중에서 왕희지 상에 차운하다(次韻昌甫所題唐宋諸賢畫像石刻王羲之像)>라는 시의 “당인들의 해서 법칙을 지금 사람들은 공부하지 않지만, 당시의

20) 이 시는 《誠齋集》 권23: 《全宋詩》 권2297, 26387쪽에 실려 있다. 이 시에는 “임친 사람임 교수 채선의 모친 서씨는 휘가 은행이며, 스스로 오공도인이라 호하였다. 우세남의 글씨를 공부하여 해서의 법을 체득하였다. 손으로 불경을 초록하였기에 오언시로 발문을 지었다.(臨川蔡教授洗之母徐氏, 諱蘊行, 自號悟空道人, 學虞書, 得楷法, 手抄佛書, 跋以五言.)”는 서문이 덧붙여져 있다.

명필로는 우세남과 구양수를 꼽을 수 있다네.(唐人楷法今人少, 筆數當年虞與歐.)”라는 구절에서도 언급되고 있는데,²¹⁾ 왕희지의 화상 석각을 읊은 시에 화답한 이 시에서는 북송 사람들은 당나라 해서 중 우세남의 해서를 경시하였지만, 남송에 이르러 우세남과 구양순의 서예가 다시금 중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楊萬里의 이 시에서는 우세남의 해서를 추켜세우고 있으니, 해서에 대한 서예 기풍에 있어서 남송과 북송이 어떤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시에서는 서씨 부인의 글씨가 마침내 왕희지 〈蘭亭集序〉와 왕헌지 〈洛神賦〉만큼이나 훌륭한 반열에 오를 수 있다고 좀 과장되게 극찬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서예에 대한 그녀의 조예가 상당히 높았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양만리는 봉건예교를 돌아보지 않고 서은행 부인의 서예에 대하여 공정한 평가를 하고 열정적인 가송을 함으로써, 이 여류 서예가가 후세에 이름을 남기게끔 하였다. 서예가의 유명한 필적이 세상에 전해질 수 있는 지의 여부는 매우 많은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 서예사에 이름을 남기지 못한 수많은 서예가들은 그들의 작품이 좋지 않다고 결코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시인은 왕희지의 스승인 위삭 부인의 서예, 왕희지와 왕헌지의 작품, 그리고 삼국시대 오나라 皇象이 章草로 서사한 〈금취편〉에 버금갈 정도로 그녀의 필적을 크게 치켜세우며 칭송하였으니, 이 시의 작가에 의해 이름이라도 후세에 남길 수 있었던 것은 큰 행운이었다고 하겠다.

2. 고금의 書體를 망라

시제에 언급된 서체 중 송대 서예사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서체는 당대 서예시와 마찬가지로 초서이다. 서체를 주제로 한 시들은 매우 많으므로 이 중 가장 전형적인 시라 여겨지는 시들 중 초서에 관한 시를 한 수 인용하고, 기타 서체에 대한 시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

21) 이 시는 《澗泉集》 권18: 《全宋詩》 권2769, 32742쪽에 실려 있다.

저 米芾의 〈지남의 초서(智衲草書)〉라는 시를 한 수 보기로 한다.

<p>人愛老張書已顛, 我知醉素心通天。 筆鋒卷起三峽水, 墨色染徧萬壑泉。 興來颯颯吼風雨, 落紙往往翻雲烟。 怒蛟狂虺忽驚走, 滿手黑電爭回旋。 人間一日醉夢覺, 物外萬態涵無邊。 使人壯觀不知己, 脫身直恐凌飛仙。 棄筆為山儻無苦, 洗墨成池何足數。 其來精絕自凝神, 不在公孫渾脫舞。</p>	<p>사람들은 이미 미친 늙은이 장욱 초서를 좋아하지만, 나는 취한 회소의 마음이 하늘과 통하였음을 알겠네. 필봉은 삼협의 물을 다 말아 올리고, 먹빛은 온갖 골짜기의 샘물을 두루 물들이네. 흥이 일면 급하기가 비바람이 노호하는 듯하고, 종이에 글을 쓰면 왕왕 구름과 연기 일어나네. 노한 교룡과 미친 독사가 갑자기 놀라 달아나고, 손 가득 검은 우레가 다투어 빙빙 회전하네. 인간 세상에서 하루를 꿈에 취했다 깨어나니, 세상 밖의 모든 모습이 끝없이 담겨 있네. 웅대한 경관은 사람들 자신도 알지 못하게 하니, 아마도 몸을 벗어던진 하늘 나는 신선인 듯하네. 버린 붓이 산을 이룸에 어찌 고통이 없었으며, 씻은 먹물이 못을 이룸 어찌 다 셀 수 있으리. 그 정묘한 빼어남은 정신의 결집에서 왔으니, 공손대랑이 추는 물아일체의 칼춤에 있지 않다네.²²⁾</p>
--	--

지남이 누구인지는 현재 명확히 고찰할 수 없으나, 한자 ‘衲’이 승복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지남이 스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혹 중만당 시기 아니면 송대의 書僧이거나, 혹은 懷素의 별칭일수도 있겠지만, 만약 회소였다면 회소라고 밝혔을 것이므로 회소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米芾은 자가 元章이고, 호는 襄陽漫仕 또는 海嶽外史 등을 사용하였는데, 서화 감상에 뛰어났고 소장품이 매우 많았으며, 송초 사대 서예가 중의 한 명으로 論書 관련 저작도 많이 창작하였다. 미불이 서예를 논함에 장욱과 회소의 광초에 대해서는 자못 완곡하게 비평을 하고 있으나, 이 시에서는 찬상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이 시가 마땅히 미불 초기의 시작이기 때문에 후대의 입론과는 어느 정도 모순을 보이고 있다. 왜냐하

22) 이 시는 《寶晉英光集》 권2: 《全宋詩》 권1075, 12258쪽에 실려 있다.

면 미불은 회소의 초서에 대해 그의 다른 시 〈설소팽에게 보내다(寄薛紹彭)〉에서 “회소 같은 망나니는 일을 잘 알지 못하여, 겨우 평담으로 다가 갔으나 장님 의사와 같다네.(懷素獨獠小解事, 僅趨平淡如盲醫.)”라고 혹평을 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²³⁾ 여기서 ‘獨獠’라는 용어는 ‘같이’ ‘주둥이가 짧은 개’이고, ‘료’는 옛날 중국 서남지방에 사는 소수민족을 멸시하여 일컫는 말인데, 둘 다 남을 욕하는 말로 주로 사용되었다. 미불은 회소에 대하여 비록 어느 정도 인정은 하였지만 결코 완곡한 비평에 그치지 않을 때도 있었으니, 일찍이 “회소는 약간 평담함을 더하여 조금 자연스러운 경지에 이르렀으나 시대가 그를 압박하여 고고할 수는 없었다(懷素少加平淡, 稍到天成, 而時代壓之, 不能高古)”고 하였다.²⁴⁾ 회소 초서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은 회소에 대한 소식의 평가와 그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회소 초서에 대한 북송대의 평가는 당대나 남송대와는 달리 호불호가 극명하게 나뉘어지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것이 한 특징이라 하겠다.

智永이 글씨를 배움에 못 쓰는 붓이 무덤을 이루고, 張芝가 글씨를 배움에 못물이 모두 검게 되었다는 고사를 인용함에서 볼 수 있듯, 마지막 네 구절에서는 미불이 심후한 서예의 공력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불은 서예를 배움에 오로지 정신에 집중하여 “글씨를 배움에는 모름지기 취를 얻어야 하며 다른 것은 다 잊어야 한다(學書須得趣, 他好俱忘)”는 書學 사상과 널리 배워서 “옛 글자를 모아야 한다(集古字)”는 창작 방법을 강조하였다.²⁵⁾ 이는 장욱이나 회소 등이 초서에서 한 순간의 영감을 존중하여 객관사물에 의지하여 계발한다는 ‘돈오(頓悟)’와는 분명히 구별된다.

송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송대에 출현한 새로운 서체로 遊絲體라는 초서체가 있었는데 이를 읊은 劉子翬(1101~1147)의 〈오부봉의 유사첩

23) 이 시는 《寶晉英光集》 권3: 《全宋詩》 권1075, 12241쪽에 실려 있다.

24) 《六藝之一錄》 권300에 실린 米元章의 〈海嶽名言〉의 한 구절이다.

25) 《清河書畫舫》 권2상에 실린 米元章의 〈海嶽名言〉의 한 구절이다.

가(吳傳朋遊絲帖歌)라는 시도 함께 인용해본다. 여기서 遊絲는 본래 거미 혹은 다른 곤충들이 실을 토하여 공중에 휘날리는 것을 가리키는데, 여기서의 유사서의 서체 내지는 필획을 가리킨다.

<p>園清無瑕二三月， 時見遊絲轉空濶。 誰人寫此一段奇， 著筆春風吹不脫。 紛紜糾結疑非書， 安得龍蛇如許癯。 神蹤政喜縈不斷， 老眼只愁看若無。 定知苗裔出飛白， 古人妙處君潛得。 勿輕漠漠一縷浮， 力適可罨千鈞石。 瞻余弟兄情不忘， 軸之遠寄悠然堂。 謝公遺髯凜若活， 衛后落鬢搖人光。 翻思長安夜飛蓋， 醉哦聲若南山外。 亂離契濶三十秋， 筆意與人俱老大。 政成著脚明河津， 外家風流今絕倫。 文章固有機杼用， 戲事豈足勞心神。</p>	<p>춘삼월 봄날의 맑은 정원처럼 흙 하나 없는 종이에, 때때로 유사초의 필획이 아득하니 구르는 것 보이네. 어떤 이가 이러한 한 단락 기이한 글자를 써서, 붓에 붙어 봄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못하게 하나. 어지럽게 뒤섞인 것이 글자가 아닌 듯도 한데, 어디서 용과 뱀 같은 여윈 필획을 얻을 수 있으리. 신묘한 흔적 딱 알맞게 끊어질듯 말듯 이어지는데, 단지 노안이라 보아도 보이지 않을까 걱정된다네. 후손인 유사서는 비백에서 나왔음을 바로 알겠으니, 고인의 기묘한 부분을 그대는 은연중에 체득하였네. 소리 없이 한 가닥 실이 떠 있다고 가벼이 여기지 마오, 굳센 힘은 천 균의 바위를 매달 수 있으니. 우리 형제 은근한 정 잊지 않고 돌아보고서, 글씨 표구하여 멀리 유연당까지 보내주네. 사령운의 멋진 수염인 듯 늙연하여 살아 있는 것 같고, 위자부의 윤기 나는 머리카락인양 빛을 발하는 듯하네. 생각을 바꿔 장안에서 친구와 함께 마음껏 즐기니, 취하여 읊는 소리가 남산 밖에서도 들리는 듯하네. 난리 통에 이합집산한 지 삼십년이 가까운데, 서예의 경지는 사람과 함께 노련해진 듯하네. 정계에 들어와 수도로 옮겨와 살게 된 이후로, 외가의 풍류는 지금도 비할 데 없이 빼어나다네. 문장은 원래부터 매우 교묘한 경지에 이르렀으니, 유희와 같은 서예가 어찌 심신을 수고롭게 하리오.²⁶⁾</p>
--	---

26) 이 시는 《屏山集》 권14: 《全宋詩》 권1916, 21387쪽에 실려 있다. 이 시의 시제인 〈吳傳朋遊絲帖歌〉에서 오부봉은 판본에 따라 吳傳朋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 있었는데, 오열의 자는 전봉이 아니라 부봉이 맞다.

遊絲書는 遊絲草라고도 한다. 필획이 가늘면서도 곧세고 부드럽고도 강하여 의취와 기세가 표일한데, 송대에는 吳說이 이 글씨에 가장 뛰어났다고 한다. 오열의 생졸년은 명확하지 않은데, 자는 傅朋, 호는 練塘이며, 지금의 浙江省 杭州 사람으로 전당의 紫溪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보통 吳紫溪라고 불렀다. 글씨는 해서, 행서, 초서에 모두 뛰어났고, 특히 유사초에 뛰어났다고 알려졌는데, 樓鑰은 “오부봉의 유사서는 이전 고인들은 쓴 적이 없다(傅朋遊絲字, 前無古人)”고 평가하기도 하였다.²⁷⁾

서예에 뛰어났고 특히 서찰에 빼어났던 劉子翬는 자가 彥沖, 호는 屏山 病翁이며, 福建省 崇安 사람이다. 30세에 武夷山으로 들어가 17년간 세상에 나오지 않았으며, 屏山에 집을 짓고 오로지 강학에 종사하였으니, 학자들은 그를 존중하여 屏山先生이라 칭하였고, 朱熹도 일찍이 그에게서 수업하였다. 유사회는 친구인 오열이 멀리서 부쳐온 유사서 작품을 얻고는 글씨를 보면서 친구를 그리워하며 이 장편 시가를 지었다. 이 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앞 16구에서는 비유와 은유를 사용하여 유사서의 모양과 정취를 그리고 있고, 마지막 8구에서는 오열 본인과 사회 환경에 귀결하면서 감개를 펼쳐내었다. 이 시는 음절이 아름답고 변화가 풍부하여 비교적 높은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전서를 읊고 있는 시도 적지 않은데, 송대에 전서를 시로 처음 노래한 시인은 바로 王禹偁(954~1001)이다. 북송초기의 문학가이며 정치가인 왕우칭은 자가 元之이며 山東 사람인데, 강직함으로 직언을 잘하여 명성이 자자하였다. 왕우칭의 <이양빙의 전서(陽水篆)>를 한 수 보기로 한다.

泠泠蔗子泉,	괄괄괄 솟아나는 서자천이요,
落落陽水筆.	우뚝하니 비범한 이양빙의 전서라네.
雲氣勢崩垂,	구름이 힘차게 무너져 내리는 듯하고,
龍蛇互蟠屈.	용과 뱀이 서로 구불구불 서린 듯하네.
嶧山旣剝滅,	역산의 석각은 이미 마멸되었고,

27) 이 내용은 《攻媿集》 권72 <跋從子深所藏吳紫溪遊絲書>에 실려 있다.

石鼓又缺失,	석고는 또 파손되어 온전치 않네.
唯茲數十字,	오로지 이양병의 전서 수십 글자는,
遒勁倚雲窟.	굳세고 힘 있게 구름 굴에 의지해 있네.
模印遍華夷,	탁본은 중국과 주변국에 두루 퍼져 있어,
流傳耀緗帙.	화려한 포장으로 장식되어 유전된다네.
書誠一藝爾,	서예는 진실로 하나의 기예일 뿐이나,
小道詎可忽.	작은 도라고 어찌 소홀히 할 수 있으리.
乃知出人事,	이제야 알았네, 보통 사람을 뛰어넘는 일은,
千古名不沒.	천고에 명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²⁸⁾

이 시는 〈八絕詩〉 중의 일곱째 시이다.²⁹⁾ 송나라 사람이 전서를 배움에
는 대부분 이양병의 篆法을 중지로 삼았기 때문에 그가 쓴 〈서자천명(庶
子泉銘)〉은 당시에 매우 중시되었다. 탁본도 이미 당시 사대부들의 애장품
이 되었고, 게다가 더욱 멀리 주변의 다른 나라에까지 전해졌는데, 이 시
에서 그러한 상황의 일단을 볼 수 있다. 시에서 언급하고 있는 ‘嶧山’은
〈嶧山刻石〉을, ‘石鼓’는 전서로 새겨진 〈石鼓文〉을 가리킨다.³⁰⁾

이 시에서는 특히 “서예는 진실로 하나의 기예일 뿐이나, 작은 도라고
어찌 소홀히 할 수 있으리.(書誠一藝爾, 小道詎可忽.)”라고 읊은 부분은 송
초까지 유학자들의 서예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왕우칭에게
있어서는 변화의 조짐이 어느 정도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유가에서는

28) 이 시는 《小畜集》 권5: 《全宋詩》 권61, 673쪽에 실려 있다.

29) 〈팔절시〉에는 왕우칭이 滁州로 귀양 와서 瑯琊山에 산재한 명승과 유적 여덟
곳을 읊게된 사정을 담은 장문의 서문이 붙어 있는데, 절구 여덟 수는 〈庶子
泉〉, 〈白龍泉〉, 〈明月溪〉, 〈清風亭〉, 〈望日臺〉, 〈歸雲洞〉, 〈陽水篆〉, 〈垂藤蓋〉
등이다.

30) 秦始皇 22년(BC 219년) 진시황이 순행하면서 山東의 역산을 올랐는데, 丞相
李斯 등이 진시황의 덕을 찬송하기 위하여 새겼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역산
각석〉은 北魏 때 무너뜨려진 후에, 시골 사람들에게 불태워져 오래 전에 실진
되었으나, 南唐 徐鉉의 摹刻本이 유전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石鼓’는 7세
기 초 陝西省에서 출토된 열 개의 북 모양으로 된 돌로 각각의 돌 북에는 모
두 사냥하는 내용의 문자가 새겨져 있는데, 당나라 韓愈의 〈石鼓歌〉란 시가
유명하다. 둘 다 전서의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예고를 선양하는 이외의 학설과 기예를 모두 폄하하여 소도라고 칭하였고, 서예 역시 기예 내지 예술이었기 때문에 소도에 불과할 뿐이었다. 이는 韋驥의 절구 〈낭야 32명, 서와 함께(琅邪三十二詠并序)〉에 실린 〈이양빙의 전서(陽氷篆)〉라는 시에서도 “필력이 진실로 기이하고 뛰어나, 마애석각에 새겨진 지 수백 년이 되었네. 사람들이 귀하게 여길 뿐임을 싫어하지 말게나, 이 학문이란 원래 세상에 전해질만한 것이 아니니(筆力眞奇偉, 磨崖幾百年. 勿嫌人貴耳, 此學世無傳)”라고 읊은 내용과 비교할 만한데,³¹⁾ 송대 유학자 대부분은 서예가 그저 소도에 불과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왕우칭은 어느 정도 인식의 전환이 있었다 하겠다. 이 시에서는 송대의 서예시는 이성적인 평가를 더욱 중시한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당대의 서예시가 열정적인 가송을 위주로 하는 것과는 분명히 구별된다.

시제에 서체를 주제로 한 서예시는 당대나 송대나 거의 모든 서체를 읊고 있다는 것은 별 차이가 없는 듯하나, 당대에는 시의 주제로 삼지 않았던 새로운 서체, 예를 들면 行書와 遊絲書 등이 시제에 출현한다는 점과 시의 수량에서 송대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이 차이라 할 수 있다.

3. 碑帖의 인식과 애호

송대 서예시에 보이는 특징 중 하나는 --碑와 --帖을 언급하고 있는 시가 많다는 점이다. 특히 왕희지 蘭亭序와 이의 별칭인 禊帖과 관련된 시는 유난히 많아, 시제에 蘭亭이나 禊帖이 언급된 시와 〈右軍書裙帖〉처럼 왕희지 서첩과 관련한 시만 근 50여 수에 육박한다.

시제에 書帖을 명기한 시로는 이미 앞에서 인용한 蘇軾의 〈왕희지 서첩에 제하다(題王逸少帖)〉와 劉子翬의 〈오부부의 유사첩가(吳傅朋遊絲帖歌)〉라는 시도 예로 들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會稽 사람으로 자가 安仁이며, 신종 元豐 2년에 진사가 되어 여러 관직을 지낸 적이 있는 華鎮(?-?)

31) 이 시는 《錢塘集》 권5: 《全宋詩》 권731, 8545쪽에 실려 있다.

의 〈이서대의 시첩에 쓰다(書李西臺詩帖)〉를 한 수 보기로 한다.

古來論書如論馬, 예로부터 글씨를 논함은 말을 논하는 것과 같아,
 不看皮毛看筋骨. 외적인 모습을 보지 않고 내적인 근골을 보았네.
 赤驥雖瘦神彩駿, 천리마 비록 아위었으나 정신과 풍채는 빼어났기에,
 骨筋強奇氣突兀. 근골은 유달리 건강하고 기운은 우뚝하였다네.
 點畫筋骨生筆端, 점과 획의 뼈대와 근육은 붓끝에서 생겨나니,
 昔人小伎不自忽, 옛사람들은 작은 기예라고 소홀히 하지 않았네.
 用筆臨紙如用兵, 붓으로 글씨를 쓰는 것은 병사를 부리는 것과 같아,
 敵陣深攻橫馳突. 적진 깊이 공격함에 빨리 달려 부딪쳐야 한다네.
 水墨淋漓無顧藉, 수묵으로 쓴 글씨 통쾌하여 돌아보거나 거리낌이 없고,
 鋒毫來往輕陵猝. 창끝 같은 필봉 내왕하니 가볍게 갈아서 대적하네.
 阜鵬蒼隼搏秋天, 검은 수리와 푸른 매가 가을 하늘을 나는 듯하고,
 老蜃長蛟結幽窟. 큰 대합과 긴 교룡이 깊은 동굴에서 얽히는 듯하네.
 李唐末年天下亂, 당나라 말년에는 온 천하가 어지러워,
 劍戟縱橫文藝缺. 전란이 여기저기서 빈번하여 문예가 무너졌네.
 鍾王遺法散不傳, 중요와 왕희지가 남긴 규범 흩어져 전하지 않아,
 二百年來更蕪沒. 이백년 동안이나 더욱이 매몰되어 사라졌네.
 臥豪側管不到紙, 넘어진 붓과 기운 붓 대롱은 종이에 이르지 못하여,
 狐渡春冰輕窸窣. 여우가 봄 얼음을 건너듯 바스락 소리만 가볍네.
 尋蹤貌影見形似, 종적 찾고 그림자 본받아 모양만 비슷하게 보여도,
 坐擬前人已超越. 앉아서 전인을 본받아 이미 초월하였다 여겼으나,
 禿盡南山千兔毫, 남산의 천 마리 토끼털을 다 붓으로 만들어도,
 妙絕曾無一毛髮. 일찍이 한 가닥의 붓털에서도 절묘함이란 없었네.
 西臺老李得古意, 하지만 서대 어른 이진중은 옛 뜻을 얻어서,
 揮洒工夫通恍惚. 붓을 휘두르는 공부를 하여 황홀함에 통하였네.
 昔聞已覺心思啓, 이미 깨쳐 사고가 열렸다는 이야기 옛날에 들었는데,
 今見頓使蒙蔽發. 지금은 갑자기 몽매한 이를 계발함을 보았네.
 縹緲欲卷更復開, 담청색 책표지를 말려다가 다시 또 펼쳐서,
 明發臨風到華月. 새벽녘 바람 맞았다 달뜨는 저녁까지 본다네.³²⁾

32) 이 시는 《雲溪居士集》 권5: 《全宋詩》 권1082, 12305쪽에 실려 있다.

九方臯는 말의 관상을 봄에 “정미함을 얻었으면 조약함은 잊고, 내재적 실질을 지녔으면 외재적인 형상은 잊는다(得其精而忘其粗, 在其內而忘其外)”고 하였는데,³³⁾ 이는 송나라 사람들이 서예를 논함에 意趣와 情韻을 숭상하고 외형의 결구를 경시한 것과 서로 통하는 곳이 있다. 이 시는 바로 이 점을 파악하고서 전개한 것이다. 시에서는 비록 이견중의 서예를 칭찬한 것이지만, 중점은 오히려 論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에서의 논서는 비유적 형상을 잘 사용하여 특징 있고 새로운 의미가 담겨 있어서, 사람들에게 계도하는 바가 있다.

송대에 이르러 유명 서예가나 정치 인물의 진필 필적을 일반적으로 ××帖으로 칭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 된 듯하다. 이는 당대의 서예시에서 시체에 ××帖이라 지칭한 시가 唐彦謙의 <집안 어른의 옛 서첩에 제하다(題宗人故帖)>는 시와 楊凝式的 <회소의 주광첩 뒤에 제하다(題懷素酒狂帖後)>라는 시 2수에 불과한 것과 대비된다. 이는 당대와 송대 이후 회소의 진적 서예에 대한 명칭에서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보아도 분명히 알 수 있다. 당대에는 회소 서예에 대해 ××첩이라 표현한 것이 楊凝式的 <회소의 주광첩 뒤에 제하다(題懷素酒狂帖後)>라는 시 한 수 뿐이지만, 송대와 그 이후에는 회소의 글씨에 대해 거의 모든 작품마다 서첩의 명칭을 붙여 ××첩, **첩, ++첩 등으로 칭하고 있다. 이는 송대에 들어서는 이미 전해 내려오는 卷軸 형태의 전대 서예작품이 상당히 많이 축적되어 작품마다 고유 명칭을 붙이는 것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송대 碑學의 가치를 새로이 발견하고 이를 서예시로 표출한 전통은 송초 梅堯臣, 蘇舜欽, 歐陽脩, 王安石 등 일군의 시인들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 모두는 비석의 가치를 인식한 서예시를 다수 창작하고 있는데, 매요신의 <경현 현위인 서강이 자기 마구간에서 부서진 안노공의 비석 글씨 26자를 얻고, 근자에 또 비석의 뒷부분에서 28자를 얻어 나와 오정중에게 부쳐왔다. 오정중이 시로 답하였기에 나도 답한

33) 이는 《列子》 권8, <說符 第八>에 실려 있는 秦穆公과 伯樂의 대화에 나오는 九方臯의 相馬와 관련한 이야기이다.

다(涇尉徐絳於其廨得魯公破碑二十六字近又於碑陰得二十八字寄予及吳正仲正仲有詩答亦答之))라는 시(《梅堯臣集編年校注》 권24), 구양수의 〈석전시, 서문과 함께(石篆詩 并序)〉(《文忠集》 권53, 外集3 古詩3)³⁴⁾ 王安石的 〈오장문이 안진경의 글이 새겨진 부서진 비석을 새로 얻다(吳長文新得顏公壞碑)〉라는 시(《臨川文集》 권9, 古詩), 그리고 소순흙의 〈단양의 자고 전언원이 초산 아래에서 왕희지의 〈예학명〉과 양나라 당나라 제현들의 석각 네 개를 얻고, 이를 모아 정자를 만들고는 보묵정이라 이름하였다. 집현학사 백진 장민이 이를 위해 기문을 짓고 멀리서 시를 구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장구를 지어 부치다(丹陽子高得逸少瘞鶴銘於焦山之下, 及梁唐諸賢四石刻共作一亭, 以寶墨名之. 集賢伯鎮爲之作記, 遠來求詩, 因作長句以寄)〉라는 시(《蘇學士集》 권8) 들은 모두 비석과 석각에 새겨진 안진경과 양응식 등의 비문 글씨를 보고 지은 시이다. 특히 구양수는 《集古錄》이란 금석학 관련 전문서도 편찬하는 등 金石學에도 일가견이 있었으므로 전대의 비석에 새겨진 금석문의 서예에도 지대한 관심을 지니고 있었으며, 구양수를 중심으로 시문혁신운동을 이끌었던 시인 집단의 일원인 매요신과 소순흙 역시 석각과 비석에 일가견을 가지고 있었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의 여러 시들 중에 여기서는 시체에 〈瘞鶴銘〉을 칭하고 있는 소순흙의 시를 한 수 인용해본다. 이 시를 지을 당시에 소순흙은 추방되어 蘇州에 은거하고 있었다.

山陰不見換鶴經, 산음에는 거위와 바꾼 〈황정경〉을 보지 못했는데,
京口今存瘞鶴銘. 경구에는 지금도 〈예학명〉이 남아 있네.

34) 이 시의 서문에는 梅堯臣과 蘇舜欽에게 글자를 자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梅堯臣과 蘇舜欽은 石篆 탐본과 이 시를 받은 후에 모두 화답시를 지었는데, 매요신은 14운으로 〈구양수가 낭야산에서 얻은 이양빙의 전서 18자와 자신의 시 한 수를 보내면서 나보고 이어서 지었으면 하기에 14운을 지어 받들어 답하다(歐陽永叔寄琅琊山李陽冰篆十八字并永叔詩一首欲予繼作因成十四韻奉答)〉(《宛陵集》 권26)를, 소순흙은 15운으로 〈구양수가 낭야산 서자천에서 얻은 이양빙 석전에 대해 지은 시에 화답하다(和永叔瑯琊山庶子泉陽水石篆詩)〉(《蘇學士集》 권10)를 남겼다.

瀟灑集仙來作記,	소탈하고 멋스런 여러 신선들 모여와 기문을 지으니,
風流太守爲開亭.	풍류 있는 태수께서는 이를 위해 정자를 지었네.
兩篇玉麈塵初灑,	두 편의 꽃같이 귀한 비문에서 진애를 갖 씻어내니,
四體銀鈎薜尚青.	사체로 된 굳센 글씨는 이끼 끼어도 여전히 과묵하네.
我久臨池無所得,	나는 오래전부터 글씨 연마하여 소득이 없었는데,
願觀遺法快沈冥.	남겨진 법첩 보며 은둔 생활 쾌활하길 기원해보네. ³⁵⁾

이 시는 시제에서부터 특이한 점이 보이는데, 바로 〈瘞鶴銘〉³⁶⁾의 발견이다. 〈예학명〉은 중국 서예사에서 매우 중요한 마애석각으로, 북송초 발견되면서부터 서예계의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원래 京口(지금의 江蘇省 鎮江市) 焦山の 산 위에 있었으나 산 위의 바위가 벼락을 맞고 붕괴하여 강 속에 추락하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되었고, 북송 초에 들어와 겨울 갈수기에 물이 말라 석각이 드러나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송초 이름난 서예가였던 소순흙은 정계에서 내쫓겨 소주에서 한거하면서 〈예학명〉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알고서는 간절하게 이를 보고자 갈망하였다고 한다.

이 시는 〈예학명〉을 쓴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연구 중에 가장 이른 견해를 담고 있는데, 소순흙은 이 〈예학명〉을 왕희지가 필사하였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는 소순흙의 개인적인 견해라기보다는 당시 사람들의 인식을 대변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 〈예학명〉의 작자가 누구인가에 대

35) 이 시는 《蘇學士集》 권8 七言律詩: 《全宋詩》 권316, 3952쪽에 실려 있고, 《御定佩文齋詠物詩選》 권175에도 실려 있는데, 앞부분의 글자가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런데 《蘇軾詩集》 권48에는 이 시가 〈寶墨亭〉이란 제목의 소식 시로 수록되어 있으나, 查慎行的 《蘇詩補註》 권48에는 姓氏가 같아서 소순흙의 시를 소식의 시로 잘못 수록한 것이라 밝히고 있다.

36) 유명한 마애석각으로, 진강시 동북쪽 焦山 서쪽 산록 마애석 위에 있다. 벼락을 맞고 양자강 속에 무너져 떨어지면서 돌이 다섯 조각으로 부서졌다. 청나라 康熙 12년(1673년) 陳鵬年이 다섯 조각의 돌을 초산 서남쪽 觀音庵에 옮겨서 조각들을 하나로 붙였는데, 현재 90여 자가 남아 있다. 〈예학명〉의 글씨는 아주 뛰어나 사람들 대부분은 陶弘景이 쓴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송나라 때는 〈예학명〉을 배운 자가 아주 많았는데, 黃庭堅도 그 중 하나였다.

해서는 역대로 십여 가지 설이 있으니, 이는 작자가 자신의 호 이외의 별 호로 본래의 성명을 대신하고 간지로 연호를 대체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어느 때 누구인지에 대해 송 이래로 이론이 분분하여 영향력이 비교적 큰 다섯 가지 설로는 晉의 王羲之, 梁의 陶弘景, 唐의 顧況 혹은 皮日休, 그리고 나무꾼을 자칭하던 은둔자 등이 있는데, 이 시의 작가인 소순흠은 당시 사람들의 인식을 대변하여 왕희지를 작가로 확신하였다.³⁷⁾

이 시의 앞 6구는 짜임새 있는 對仗으로 <예학명>과 그 서예가에 대한 양모의 정과 정자를 지은 자와 서문을 지은 자에 대한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다. 후반의 2구에서는 <예학명>을 보았으면 하는 갈망의 심정을 드러내었다. 시구에 나오는 ‘集仙’이란 시체에 나오는 寶墨亭의 기문을 지은 集賢伯鎮을 가리키는데, 집현이라 한 것은 백진이 일찍이 集賢學士를 지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章岷의 字가 백진으로, 장민은 송 인종 天聖 년간에 진사에 급제하였으나, 나중에 진강으로 이사하여 살았다. ‘風流太守’는 시체에 나오는 丹陽子高를 가리키는데 吳越王 錢鏐의 후손이며 자가 ‘자고’인 錢彥遠을 지칭한다. 전언원은 일찍이 潤州를 다스렸는데, 송나라 사람들은 知州를 태수라고도 칭하였다. ‘풍류’란 재능이 있으면서 예법에 구속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開亭’은 보목정을 창시한 것을 말한다. 劉昌의 《縣筭瑣探》에 “보목정은 송나라 초에 건립되었는데 <예학명>을 덮어둔 것이다(寶墨亭, 宋初建, 以覆瘞鶴銘者)”고 하였으니,³⁸⁾ 마땅히 전언원이 지은 정자인 보목정을 가리킨다.

아울러 송대 서예시의 시체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비석은 中興頌碑(浯溪碑, 磨崖碑)인데, 여기서는 張耒의 <바위를 파고 새긴 비문의 탁본을 읽은 뒤에(磨崖碑後)>라는 시³⁹⁾를 한 수 인용해보기로 한다.

37) <예학명>의 원문과 유전, 그리고 작가 등에 대해서는 《예학명과 중국 양자강 유역 석각(瘞鶴銘中國揚子江流域石刻)》(연세대학교 박물관특별기획전 17, 연세대학교박물관 편, 1996.5) 169-179쪽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38) 이러한 내용은 查慎行이 編撰한 《蘇詩補註》 권48의 <寶墨亭> 시의 사신행 주석에 실려 있다.

39) 《柯山集》 권11: 《全宋詩》 권1163, 13129쪽에는 <독중흥송비(讀中興頌碑)>

玉環妖血無人掃,	양귀비의 요망한 피 쓰는 사람 없고,
漁陽馬厭長安草.	어양의 말들 장안의 풀 물리도록 먹었네,
潼關戰骨高於山,	동관에는 싸우다 죽은 뼈 산보다 높고,
萬里君王蜀中老.	만리 밖의 임금은 촉 땅에서 늙었네.
金戈鐵馬從西來,	황금 창 철갑 말 서쪽에서 왔으니,
郭公凜凜英雄才.	곽공 늠름하고 영웅의 재주 지녔네.
舉旗爲風偃爲雨,	깃발 들면 바람 일으키고 누이면 비 내려,
洒掃九廟無塵埃.	종묘 사직 물 뿌리고 쓸어 먼지와 티끌 없게 했네.
元功高名誰與紀,	큰 공적과 높은 이름 기록할 이 누구던가,
風雅不繼騷人死.	국풍과 대소아 이어지지 않았고 이소 지은 사람 죽었네.
水部胸中星斗文,	수부는 가슴 속에 별 같은 글재주 있었고,
太師筆下龍蛇字.	태사의 붓 아래에는 용과 뱀 같은 글씨 있었네.
天遣二子傳將來,	하늘이 두 사람 보내어 전하도록 하셨으니,
高山十丈磨蒼崖.	높은 산 열 길의 푸른 벼랑 같았네.
誰持此碑入我室,	누가 이 비석의 탁본 가지고 내 집으로 들어왔는가?
使我一見昏眸開.	내 한 번 보고 어둠던 눈 열리게 하네.
百年廢興增歎慨,	백년의 흥하고 망함에 탄식과 감개 더하니,
當時數子今安在.	그 당시 여러 분들 지금 어디에 있는가?
君不見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
荒涼涪水棄不收,	황량한 오계의 물가에 버려져 거두어지지 않고,
時有遊人打碑賣.	이따금씩 어떤 나그네 비문 탁본해서 파는 것.

이 마애비의 문장은 당나라 元結(719~772, 자는 次山)의 <大唐中興頌> 이고, 글씨는 당나라 안진경(709~784)이 쓴 친필이었다. 당 천보 14년(775), 안록산이 난을 일으켜 낙양을 함락시키고, 이듬해엔 장안마저 함락시키자, 현종은 촉으로 피했고, 태자가 靈武서 즉위하여 반군 진압에 나섰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찬양하여 元結이 지은 글이 바로 <대당중흥송>이므로 中興頌碑라고 하며, 그 글이 涪溪의 磨崖에 새겨졌기에 涪溪碑라거나 磨崖碑라고도 칭하였다. 장외의 이 시는 천보의 난과 당나라 중흥의

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사업을 기록한 문장과 필적은 남아 있으나, 황폐해진 오계의 물가를 보면 가늠 수 없는 회고의 정이 일어남을 영탄한 시이다. 원결은 <대당중흥송>에서 <이 송을 새기니 어찌 천만 년만 전하겠는가?>라 하여, 마애비가 영원히 전해질 것으로 확신했다. 그러나 장외 당대에 이르러서는 아무렇게나 방치된 채 풍상에 마모되어 원결의 명문과 안진경의 글씨도 시간의 흐름 앞에 어쩔 수 없이 되고 말았다. 전대의 성덕이 세월의 흐름과 함께 잊혀지고 바래지는 것을 영탄하면서, 나라를 위해 힘썼던 충신들을 추모하는 정이 시 전반에 짙게 깔려 있다. 시의 전체적인 주안점이 서예 보다는 영사에 두어져 있지만 마애비의 탁본을 보고 안진경 친필 글씨의 빼어남을 용과 뱀 같은 글씨라고 칭찬하고 있다.

이 <마애비>에 관해서는 黃庭堅 역시 <제마애비(題磨崖碑)>라는 시를 지은 적이 있는데, 황산곡의 이 시는 송나라 崇寧 3년(1104) 3월, 황정건이 그의 나이 60세 때, 마애비를 직접보고 그 감개를 읊은 것이다. 황정건의 시에서는 시의 중점이 왕조의 흥망성쇠에만 주어져 있고 서예와 관련 있는 구절은 24구의 장편 시 중에 단지 “평소에 반 평생 동안 탁본으로 보아오다가, 비석 어루만지는 지금에 이르러선 귀밑머리 실처럼 되었네. (平生半世看墨本, 摩挲石刻鬢如絲.)”라는 두 구절뿐이다.⁴⁰⁾ 이러한 점은 시체에 中興頌碑, 浯溪碑, 磨崖碑 등의 용어가 들어 있는 시들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송대 비학의 가치를 새로이 발견하고 이를 서예시로 표출한 전통은 송초 일군의 시인들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송대에 비석을 읊은 서예시에서는 비학의 면모를 전적으로 읊은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으므로, 비학과 첩학의 면모를 충실하게 담고 있는 청대 서예시의 남상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40) 《黃山谷文集》 권8: 《全宋詩》 권998, 11441쪽에는 <마애비 뒤에 쓰다(書磨崖碑後)>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IV. 결론

唐代에 창작되기 시작한 서예시는 당대 중엽에 이르러 본궤도에 올랐는데, 이는 詩가 당대의 가장 주요한 문학 장르였기 때문에 당대의 시인들이 문인들의 서사도구였던 문방사보를 포함한 서예에 관심을 가지면서 시의 주제로 삼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서예시는 당대보다 宋代에 이르러 더욱 활발하게 지어지고 내용도 더 다양해졌다. 당대의 서예시는 《全唐詩》 전체를 통틀어 100여수 정도를 선별할 수 있었지만, 송대의 서예시는 《全宋詩》에서 모두 900여수 정도를 추출할 수 있었는데, 본고에서는 이들 송대 서예시를 일차적 연구 대상으로 삼아 송대 서예시의 특징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송대 서예시는 당대 서예시에 비해 그 수량이 거의 10배 정도 되기 때문에 주제로 다루고 있는 내용도 당대 서예시에 비해 더욱 다양하고 풍부하였다. 다양하고 풍부한 주제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두드러지는 것은 중국 서예사에서 반드시 거론되는 당 이전과 당대의 유명 서예가는 말할 것도 없고, 송대의 유명 서예가, 그리고 중국 서예사에서는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는 송대 인물들의 서예를 다루었다는 것이다. 송대 서예시의 시체에 등장하는 역대 서예가 중 왕희지와 왕헌지의 명칭과 관련한 내용이 가장 많아 거의 50수에 가까웠고, 이에다 이들의 서첩과 관련한 어휘가 시체에 언급된 시 역시 근 50수에 육박하였다. 따라서 시체에 왕희지와 왕헌지의 서예와 관련한 시만 근 100여수 가까이 되었다. 왕희지와 왕헌지의 二王을 칭송하고 있는 시들이 특히 많은 이러한 현상은 왕희지가 당대에 이어 송대에도 최고 수준의 서예가로 추존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송대 서예사에서 왕희지 왕헌지의 이왕, 특히 중국 역대 최고의 명필이란 칭호가 있는 왕희지 서예에 대한 추존의 정도는 당대보다 더 강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시제에서 거론되고 있는 각종 서체 역시 당대에 비해 더욱 다양하고 수량도 많아졌다. 송대 서예시의 시체에 언급된

서체는 거의 모든 서체를 망라하고 있으면서, 시의 분량도 250수에 육박하고 있을 정도로 많았다. 이중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서체는 당대와 마찬가지로 草書에 관한 내용이었지만, 당대에는 언급되지 않았던 行書와 遊絲書와 같은 서체가 언급되고 있다는 점이 이채롭다. 아울러 송대 서예사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은 시체에 碑와 帖이란 용어를 언급하고 있는 시가 특히 많았다는 것이다. 시체에 -碑와 -帖이란 용어를 직접 언급한 당대 서예시는 7수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송대 서예시에서의 비첩 관련 내용은 가히 폭발적이라 할 만큼 수가 많아졌다. 이는 서체가 새겨진 송대 이전의 비석 유물과 전대의 진적이 시대를 거듭할수록 많아졌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송대 문인들이 비와 첩의 가치를 새로이 발견하였고 이 둘의 특징적인 차이를 인식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송대 서예시 담겨 있는 주된 내용 역시 書論이라고 할 수 있기에, 본고에서는 당대 서론과 비교하여 송대 서론에 관한 연구를 포함하고자 하였으나, 분량 문제로 인해 한 편의 논문에 이 내용을 모두 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따라서 서론에 관한 연구는 별도의 논문에서 달리 다루어보고자 한다. 아울러 당대 서예시와 구별이 되는 송대 서예시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과 형식상의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해보고자 하였으나, 이 또한 지면의 제한으로 인하여 다음 연구 과제로 미루어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 연세대학교박물관 편, 《예학명과 중국 양자강 유역 석각(廬鶴銘中國揚子江流域石刻)》, 연세대학교 박물관특별기획전 17, 연세대학교박물관, 1996.5.
- 禹在鎬, 《당나라 시인들이 서예를 노래하다-中國 唐代 書藝詩》, 영남대학교출판부, 2020.10.

- 禹在鎬,〈唐代 書藝詩 試探〉,《中語中文學》43輯,2008.12.
- 禹在鎬,〈梅堯臣 書藝詩 特徵〉,《中國語文學》55輯,2010.6.
- 禹在鎬,〈文房四友를 읊은 唐詩에 관하여〉,《韓中言語文化研究》37輯,2015.02.
- 禹在鎬,〈黃庭堅의 書藝詩 研究〉,《中國語文學》69輯,2015.8.
- 禹在鎬,〈蘇軾의 書藝詩를 통해 본 書藝觀〉,《中國語文學》71輯,2016.4.
- 禹在鎬,〈懷素 草書와 역대 懷素草書歌에 대하여〉,《中國語文學》77輯,2018.
- 禹在鎬,〈唐代 草書와 歌行體 草書歌의 상관성〉,《中國語文學》79輯,2018.
- 주준길 저, 락노봉·이경애 역,《서예가》(서예지식 1000제), 다운샘, 2017.9.
- 蔡顯良,《唐代論書詩研究》,南京藝術學院 碩士學位論文,2004.
- 蔡顯良,《宋代論書詩研究》,南京藝術學院 博士學位論文,2007.
- 蔡顯良,《宋代論書詩研究》,人民出版社,2013.3
- 李靜月,《唐代書詩의 書法史料價值研究》,首都師大碩士學位論文,2005.
- 田奕,〈電腦裏的唐詩〉,《文學遺產》第5期,1992.
- 楊克炎 選注,《書法咏論》,遼寧美術出版社,1993.
- 玉村霽山 編,《中國書道史年表》,二版,二玄社,2015.
- 張毅、于廣杰,《宋元論書詩全編》,南開大學出版社,2017.
- 《全唐詩(上·下)》,再版,臺灣,宏業書局,民國71年.
- 《全宋詩(全72冊)》,北京大學出版社,1998.
- 文淵閣四庫全書 電子版,上海古籍出版社,3.0版,2007.

<Abstract>

Poems on Calligraphy, which began to be created in Tang Dynasty, was on track in the middle of Tang Dynasty. However, these calligraphy

poems were more actively built and more diverse in Song Dynasty than in the day. Tang Dynasty's calligraphy poems was able to select about 100 numbers throughout *Quantangshi* (全唐詩, *Complete Poetry of the Tang: A Complete Collection of Tang Poems*), but Song Dynasty's calligraphy poems could extract about 946 numbers from *Quansongshi* (全宋詩, *Complete Poetry of the Song: A Complete Collection of Song Poems*). Therefore, in this paper, I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Song Dynasty's calligraphy poems using these Song Dynasty's calligraphy poems as the primary research subject.

Song Dynasty's calligraphy poems are almost 10 times more numerous than Tang Dynasty's calligraphy poems, so the contents covered in the subject were more diverse and rich than Tang Dynasty's calligraphy poems. In this paper, the analysis angle was slightly different from that of previous studies in China, first of all, focus on the title of the poem, and the analysis was conducted focusing on calligraphers, calligraphy, stone inscription and books of rubbings.

Key Words : 宋代(Song Dynasty), 書藝(Calligraphy), 書藝詩(Poems on Calligraphy: The poetry that treats of Calligraphic), 書藝家(Calligrapher), 書體(Scripts), 碑帖(Stone Inscription and books of rubbings), 書論(Theory of Calligraphy)